



폭등 국제유가 닷새만에 하락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였던 국제유가가 닷새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22일(현지 시간) 뉴욕 상업 거래소(NYMEX)의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은 개장 전 전자거래에서 사상 최고가인 배럴 당 135.00달러까지 오른 뒤 하락세로 돌아서 전날 종가에 비해 2.36달러 떨어진 배럴 당 130.81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런던 ICE 선물시장의 7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장중에 배럴 당 135.14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 하락세로 전환, 전날 종가에 비해 2.12달러, 1.6% 떨어진 배럴 당 130.58달러를 나타냈다.

시장 관계자들은 불과 이틀 사이에 배럴 당 130달러를 넘어 135달러까지 돌파했을 정도로 강력한 상승세를 보인 데 따른 부담감과 함께 현재의 유가 수준이 수급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인식이 나타나면서 유가가 하락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중국 쓰촨 대지진 여파 진시황 병마용 일부 파손

쓰촨(四川) 대지진의 여파로 인접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의 병마용(兵馬俑)도 부분적으로 파손됐다고 홍콩 빙과일보(Apple Daily)가 23일 보도했다.

현재 진시황 병마용 박물관의 일부 전시관은 휴관한 다음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박물관측에 따르면 박물관에 내진 설비를 갖추고 있어 지진 발생 후 병마용들이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으나 일부 병마용이 지진 충격으로 부분 파손됐다.

박물관은 지진 발생 직후 관람객을 내보내고 진시황릉 출토 문화재가 진열된 전시관과 원형 상영관의 문을 닫은 다음 유적 현장 및 문화재 훼손 정도와 건축물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산시성 문물국은 고대 건축물에 균열이 생기고 기물이 파손되는 등 산시성에 산재한 문화재들이 지진 충격으로 적잖은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쓰촨성과 산시성, 간쑤(甘肅)성의 교차지점에 위치한 낭천(寧強) 현 칭무천(青木川)진에서 가장 보존이 잘 된 근대 건축물로 꼽히는 위씨 대원의 지붕도 훼손됐다.

/연합뉴스

마지막까지 '실속없는 국회'

■ FTA 대치속 17대 국회 사실상 막내려

탄핵 후폭풍으로 문 연후 대립과 갈등의 연속 민생현안 기한 넘기기 일쑤...입법기능 충실히 평

17대 국회가 한미 쇠고기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로 마지막까지 여야간 극한 대결 속에 23일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한나라당이 오는 26일부터 17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29일까지 나흘간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키로 했으나 민주당이 이에 부정적이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는 힘들게 됐다.

탄핵 후폭풍으로 문을 열었던 17대 국회는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2004년 첫해엔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이른바 '4대 개혁입법' 처리를 두고 몸싸움이 벌어졌고 극심한 이념 대립도 빚어졌다.

이후에도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전 사회적으로 갈등을 불렀고,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관련 입법안, 비정규직 관련 3법 제·개정, 한미 FTA 체결, 국민연금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한시도 평온한 날이 없었다. 지난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BBK 특검법' 처리를 두고 여야는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다.

더욱이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소집된 이번 4월 임시국회 역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로 여야는 극한 대결을 벌였다. 새해 예산안 역시 각종 정치 현안의 불묘가 되면서 한법에 규정된 기일을 넘겨서 처리됐다.

현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있은 지 한달여 만에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했으

며 국민의 기대감을 불렀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17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 똑같이 공개석상에서 독설과 비난이 난무했다. 현역의 원신분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10당을 향해 '차폐기당' 운운해 정국 경색을 자초하는가 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면책특권을 앞세워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에 대한 의도적 색깔공세를 반복했다.

정당별 관점에서 열린우리당은 '오민'

과 '독선'의 이미지를 국민에게 심었고 결국 주력군이었던 386정치인은 18대 총선에서 대거 낙마했다. 기대를 모았던 민주노동당 역시 의정활동 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성과도 있었다. 17대 국회는 이전 국회에 비해 입법부 본래의 기능에 가장 충실했다는 평을 받는다. 의원발의 법안 처리 건수는 3천258건으로 16대(1천912) 국회에 비해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의원 1인당 처리 건수도 두 자릿수인 10.9건으로 16대(7건)를 월등히 상회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소년체전 자원봉사자 발대식

지 광주 일원에서 열린다.

23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7회 전국소년체전 자원봉사자 발대식'에서 자원봉사자 1천명이 '성공 체전'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오는 31일부터 6월 3일까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공공기관 이전 전제로 민영화해야”

혁신도시건설촉진 국회의원 모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부유·빈곤가구 소득격차 사상 최대

농어업 가구를 제외한 전국가구의 소득격차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져 소득분배 악화 현상이 지속됐다.

또 물가급등에 따라 실질소득은 증가세가둔화된 반면 공여수도비와 식료품 등 필수 지출이 늘어 서민층 가계의 부담이 커졌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1·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2인 이상 전국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41만5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증가했다.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전을 담보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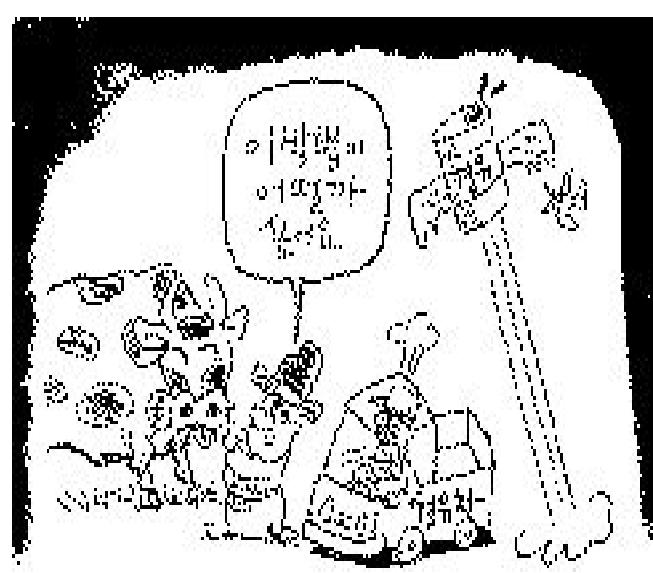
물가급등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1.2% 증가에 그쳐 지난해 1·4분기 증가율 4.0%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소득은 5분위로 살펴보면 5분위(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731만2천원이며 1분위(하위 20%)는 86만9천원으로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8.41에 달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것으로 소득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음을 보여준다.

/연합뉴스

日만정

- 김종우



미국소를 한마리씩 타고 다니면...

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 연합

18+3석 교섭단체 공동 구성... 원내 제3당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23일 정당간 연대 형식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공동 구성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양당은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통합주당에 이어 세번째 교섭단체로 탄생하게 됐다.

두 정당이 '당 대 당' 합당이 아니라 연합 형태로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양당이 연대해 원내교섭단체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총재와 문 대표는 합의문에서 "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은 대운하 저지, 겹여주권과 국민의 건강권 확보가 전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는데 뜻을 모았으며 이를

위해 교섭단체를 공동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진당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18석, 창조한국당은 3석을 얻었기 때문에 양당이 공동 교섭단체로 등록하면 총 의석 수는 21석이 된다.

양당은 전파기록 누락 등의 혐의로 구속된 창조한국당 이한정 비례대표 당선자를 제외하더라도 의석 수가 20석이 돼 교섭단체 지위(20석 이상)를 유지할 수 있다.

이번 합의는 선진당의 제안으로 시작돼 성사됐으며 선진당은 공동 교섭단체 구성후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2단계로 합당 방안까지 구성하고 있으나 창조한국당은 아직까지 합당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설

U대회 정부대표단 평창 '실패' 되새겨야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광주가 유치전에 나선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U대회) 정부 대표단 단장으로 확정됐다. 유 장관은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오는 31일 평가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U대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국제 대회스포츠연맹(FISU) 총회에 참석한다.

광주의 경쟁상대는 러시아 카잔이 유력하다. 우리는 지난해 평창이 동계올림픽 유치전에서 러시아 소치에 패배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드디어 활동을 벌인 것이 우리 주요 패인으로 분석됐다.

U대회의 광주 유치도 안심할 수 없다. 단장이 장관으로 격상됐다고 하지만 러시아는 푸틴 전 대통령(현 총리)이 나서 FISU 집행위원회를 총괄하고 있고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각성할 필요가 있다. 평창의 실패를 광주에서 되풀이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표단의 책임은 막중하다. U대회 개

가 위축돼 경기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에 세계경제가 인플레이션에 밭을 잡힐 것이다. 통계청의 1·4분기 가계수지 동향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정부나 국민이 무감각증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주말이면 도로에 차량이 넘쳐나고 유흥업소의 심야영업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 역시 환율시장 개입 등을 통해 경상수지 회복과 내수 진작에 나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형국이다.

고유가는 이전 경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대대적인 소비절약 운동을 펼쳐 기름 소비를 줄여야 한다. 정부도 정책목표를 바꿔 상장을 잠시 접고 물가 잡기에 모든 거시경제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교과부 '나랏돈 생색' 철회

李 대통령, 김도연 장관 질책

교육과학기술부는 김도연 장관을 비롯한 간부들의 모교 예산 지원 논란과 관련, 모교 등에 대한 지원 약속을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23일 “모교 등에 대한 예산 지원 문제에 불거진 미당에 약속대로 이행하기는 어렵게 됐다”며 “예산 지원 증액은 모두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지원을 약속하는 증서를 전달받은 일부 학교는 논란이 빚어지자 스스로 예산을 지원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교과부 간부 등에게 전해 오기도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학교 현장 방문 행사를 통해 모교 예산 지원 문제가 불거져 물의를 끊은 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모교인 서울 용산초등학교를 찾아 2천만원의 예산 지원을 약속한 증서를 끊고 우형식 1차관은 지난 16일 모교인 대경고를, 박종구 2차관은 지난 13일 모교인 서울 충암고를 각각 방문, 1천만원씩 지원을 약속했다. 교과부 실국장 6명은 모교와 출신 지역 학교 등을 방문해 500만 원씩 지원을 약속하는 증서를 전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모교 국비지원 원 논란 보고를 받고 “모교를 지원하려면 사과로 하라”면서 모교 국비지원 쇄수를 지시했다.

/연합뉴스

교과부 사과...교원·시민단체 “감사 청구”

교과부는 23일 ‘스승의 날’ 기념 학교현장 방문 관련 발표문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모교 방문 지원이 관행적이긴 했으나 새 정부의 변화 의지에 걸맞지 않았던 것을 인정한다”며 “특히 간부진의 모교에만 지원한다는 비판과 지적은 겪혀서 수용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

육시민단체는 교과부의 소극적인 유감 표명

에 실